

과테말라에서의 “인종”(race)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최진숙(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 I. 서론
- II. 과테말라에서의 ‘인종’ 개념의 발달과 근대 국가 성립
- III. 마야와 라디노 간의 분리와 혼합
- IV. ‘인종’에서 ‘종족’으로: 범마야운동과 국가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
- V. 결론

I. 서론

서구 인류학계에서는 1950년대 이후 “인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과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것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었다(Harrison 1995). 이는 인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인종주의적 함의를 가진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 것이다. 여기에 “국민성” “인종” “종족”과 같이 사회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개념에 대한 반성적인 통찰이 시작되면서 “인종”이란 실재하지 않으며, 단지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주장이 팽배했다(Hale 1997; Smedley 2007). 즉, Smedley(2007)가 주장하듯이 인종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은 생물학 및 유전학적인 그것과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 Jin-Sook Choi(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Cross Cultural Studies, tostijin@gmail.com), “A Study of the Notion of ‘Race’ in Latin America: The Case of Guatemala”.

미하는 것이다. 가령, 필자는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쳐 자주 방문하였던 과테말라의 한 도시에서 “더러운 인디오(indio)들, 다 나가라!” 하는 낙서를 발견했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인종’에 대한 유전학적인 고찰 대상이 될까? 인종이란 인종 차별, 우열 관계, 위계질서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 현상의 하나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di Leonardo(2004)는 인종을 단순히 이데올로기로만 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인종 개념이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생성되는 과정을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아일랜드 민족은 ‘아프리카의 흑인과 같은’ 민족이라 칭해졌고, 미국에서 20세기 초에는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더럽고, 게으르다,” 혹은 “범죄자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di Leonardo 2004; Smedley 2007), 현재 이들은 미국에서 ‘백인’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라티노나 흑인에 대한 차별적 담론의 생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흔히 동일한 인종 집단이라 간주되는 백인 사이에서도 인종적 위계질서는 항상 있어왔고 정치경제적 변화 속에서 그 위계질서 속의 지위는 변화할 수 있다. 결국 인종 차별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으며, 인종이란 집단 간 관계 속에서, 특수한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 틀을 적용, 과테말라에서 19세기 독립 이후 인종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고 및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이후 ‘인종’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과테말라의 사회적 위계질서 내에 항상 하층에 위치 지워졌던 마야원주민들이 어떠한 식으로 규정되어 왔는지에 주목하여, 특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인종 개념의 정립이 어떻게 국가 이데올로기와 연계되는지를 보려고 한다. 과테말라 사례는 과테말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마야(Maya) 원주민이 과테말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인종 개념의 역사적 특수성을 증명하는데 유용하다.

1) 과테말라에서는 마야원주민을 흔히 *indigena*, 혹은 *indio*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후자는 특히 원주민을 경멸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역사적 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것이다. 첫째, 19세기 독립 후 근대 국가 성립 시기, 둘째, 1944-54년의 소위 ‘10년간의 봄’이라 불리는 사회주의 정권 시기 및 이후 1996년까지 지속된 좌파 게릴라 운동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90년대에 폭넓게 전개되는 범마야운동 시기 등이다. 이와 같은 세 단계는 바로 과테말라의 마야 원주민이 국가 이데올로기²⁾ 속에서 상이하게 정의되는 양상에 따라 나누어 본 것이다. 우선 과테말라에서 근대국가 성립 시점에 ‘인종’ 개념이 어떻게 적용, 발달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 좌파 정권 및 게릴라 운동가들이 예전에는 ‘인종’으로 나뉘어 졌던 마야 원주민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였는지를 볼 것이다. 끝으로 최근 과테말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범마야운동(Pan-Mayan movement)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상황이 마야 원주민을 규정지었던 기존의 ‘인종’ 개념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고의 논의를 위하여 기존의 역사학적, 인류학적 연구 외에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자의 방문 및 현지 조사³⁾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다.

II. 과테말라에서의 ‘인종’ 개념의 발달과 근대 국가 성립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민지에서 독립 국가로의 이행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인종’ 개념과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에 휩쓸린 라틴아메리카 엘리트, 지식인들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세기 초 중남미 국가들은 ‘근대성’, ‘진보’를 향한 자유주의적 이상에

- 2) 과테말라의 좌파 게릴라 세력 및 마야 원주민 운동 세력의 경우는 물론 정착된 국가 이데올로기라기 보다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한다.
- 3) 예비조사 단계의 방문은 주로 1-2개월 동안 예비 조사 및 현지 언어 습득을 위한 것이었으나 안피구아 및 께잘데낭고라는 소도시에서 하숙했던 곳의 집주인과 자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집주인은 마야원주민이 아닌 라디노였다. 본격적인 현지조사는 모도스페낭고라는 마야 원주민 공동체 촌락에서 11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사로잡혀 근대성에 반대되는 것은 말살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Lovell 1988). 1821년 과테말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직전, 산업혁명을 겪은 유럽은 노동과 토지를 찾아 나서는 역사상 두 번째의 대외 팽창을 시작하였다. 19세기 초 과테말라의 농업수출 발달은 대개 인디고(indigo) 산업에 기반해 있었다(Woodward 1987). 인디고 산업은 크리오요(criollo) 집단이 이윤을 남기는데 기여하였다. 크리오요들은 보수파와 자유파, 두 정치적 파벌로 나뉘어 경제적 및 정치적 영역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투쟁을 하고 있었다. 보수파는 구식민지적 사회질서를 옹호하여 식민지적 노동 통제 및 교회 권력에의 의존을 추구하였고, 자유파는 카톨릭 교회의 권력을 제한하여 원주민 토지의 보호를 없애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갈구하였다(Lovell 1988). 자유파 정권은 중미 연합을 만들어내려 하였고, 1823년에서 183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과테말라를 지배하였다. 원주민에 대한 자유파의 정책은 당시 유럽을 휩쓸던 사상이었던 계몽 사상을 반영하여, 원주민 인구의 ‘근대화’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Grandin(2000)은 그의 연구에서 원주민을 근대 국가에 편입시키는 과정은 자본주의적 편의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계급적 이익이 근대 국가이데올로기에 반영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Grandin에 의하면, 과테말라에서 커피 경제⁴⁾가 싹트기 시작하는 시기, 커피 경제에 동원될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원주민을 항상 ‘타자’로서 규정함으로써 노동력 시장에서 하층에 위치시킬 수 있었다(Grandin 2000). 또한 그는 독립 이후 도입된 새로운 인종차별주의는 “과테말라의 자본주의 발달의 모델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까지도 설명해준다”(Grandin 2000, 227)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과테말라의 자유파 및 신자본가들은 과테말라를 유럽처럼 만들고 싶었으나 실패하였고, 그들은 실패의 원인을 원주민의 존재에

4) 커피 농장의 팽창은 인디언 농민들을 프롤레타리아화하였고, 계절 노동 및 debt peonage 체계에 기반하여 커피 농장 주인들을 중심으로 한 독점 과두 정치가 사회 위계질서의 기본을 이루게 되었다. 이 새로운 농산물 수출 산업의 발전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위와 같은 노동 동원 및 이용 체계는 식민지 시대의 그것에 버금가는 노예적 관계를 불가피하게 하였다(McCreery 1986).

서 찾으려 했다. 19세기 말에 강제 노동 등으로 동원된 원주민들을 인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유주의자들조차 “원주민을 반야만적 상태에서 구하여 문명화해야 한다”(Handy 2000)라고 주장하여, 당시 원주민을 단순히 문명 세계의 반대편에 놓여 있는 존재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대 국가 프로젝트와 맞물린 과테말라의 19세기 및 20세기 초의 인디헤니즘(indigenismo)은 마야 원주민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Burns 1980). 아담스(Adams 1991)에 의하면 인디헤니즘은 “인디언의 문명화를 통한 노동통제를 가능케 하는 정책”(Adams 1991, 181)으로 정의된다. 이는 공유지의 사유화 및 강제 노역제의 도입이 시작되기 무렵인 19세기에 절실한 정책이었다(Fischer 2001). 이 정책은 또한 마야인들을 마야 공동체 밖으로 나오게 하여 문화적 상실을 유발하였다. 가령 스페인어의 습득이 사회경제적 절대 필요 수단으로 되면서 마야 언어는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하였다.⁵⁾

Little-Siebold(2001) 및 Casaus Arzú(1998)는 과테말라에서 ‘인종’ 개념이 근대 국가 성립 시기와 맞물리면서 과테말라 특유의 ‘혈통’의 맥락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역사성에 주목한다. Little-Siebold(2001)는 국가와 시민 간의 양극화 속에서 ‘근대화’ 정책의 부산물로서의 근대적 시민성(citizenship)을 과테말라 인구 집단을 ‘라디노’⁶⁾ 혹은 ‘인

5) 이와 유사하게 멕시코의 인디헤니즘은 문화적 변용을 통한 원주민의 소위 ‘후진 문화’를 버리고, 보편적 인종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에 반영한다(김세건 2003; 주종택 2005; 김윤경 2006).

6) 오늘날 “라디노”라는 인종 범주의 정확한 기원은 불명확하다. 하지만 어떠한 이론에 기반하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혼혈”과 “인디언과는 다른 인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과테말라에서 인종의 다양화, 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식민지 시대부터이다. 식민지 시대 동안 스페인인들과 원주민 간의 혼합은 새로운 인종 범주, 소위 “castas”(Martínez Peláez 1971)를 탄생시켰다. ‘카스타’란 ‘혼혈’을 지칭하는 일반적 칭호이지만, ‘라디노’란 오늘날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당시 굳이 혼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라디노’란 노예 노동, 강제 노역 등으로 인해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 있어야 했던, 그러기에 자신의 공동체와의 연대를 잃고 말았던 인디언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특히 그들은 식민지 시대 당시 낮은 지위에 처해있었다. 독립이 될 무렵 인디언들은 인디오 농장에 동원되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공동체에서 영구 이주가 불가했던 것이다(Smith 1990).

디언'으로 규정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마야 원주민들은 발전과 진보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는, 뒤떨어지고 정체되어 있는 존재로 규정되었다(Smith 1990). 1931년 Fernando Juárez Muñoz라는 과테말라 사회학자는 *El Indio Guatemalteco: Ensayo de Sociología Nacionalista* 라는 책에서 원주민들은 “더럽고, 게으르고, 술에 찌들고, 증오에 가득찬”(Handy 2000, 2, 재인용) 사람들로 묘사하기도 하였으며, Grandin (2000)에 의하면, 19세기 말에는 콜레라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원주민의 생활양식으로 돌리는 담론이 성행하였다. 이와 같이 원주민은 사회병리학적으로 해로운 존재이며, 근대 국가가 꿈꾸는 진보와 발전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규정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주민을 진보와 발전의 반대급부에 놓는 일은 19세기 백인 지배계층의 인종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독립 이후 경제에 기반한 종족적 분극은 실제로 식민지 기간 보다 더 심한 인종주의와 맞물려 있었다(Casaus Arzú 1998). Casaus Arzú는 19세기의 인종주의야말로 정치적 사회적 계층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당시 과두 정부(oligarchy)는 혼혈(mestizaje)에 기반한 국민 국가를 건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을 백인화(blanquear)하고 인디언들을 문명화시키려”(Casaus Arzú 1998, 34)하였다. 그러므로 과테말라의 백인 엘리트들은 인디언의 존재를 목살하기 위하여 이들을 적어도 동화정책을 통하여 ‘라디노’로 만드는 작업을 서둘렀다. 인디언의 존재 자체가 과테말라의 백인들을 ‘오염시키는’ 것이라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곧 엘리트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정당화시키고 상상의 국민국가를 설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에 덧붙여, Casaus Arzú(1998)는 과테말라의 인종주의의 특징을 우생학에서 빌려 온 인종에 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순혈주의’라 규정짓는다. 우생학은 유전학의 한 갈래로서 독일 나찌의 통치 이념으로 활용되었다. 즉, 바람직하지 않은 형질을 가진 개체는 애초에 씨를 말려야 후세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믿음이다. 과테말라에서는 물론 이와 같은 폭력적인 인종주의를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과테말라의 과두정치 엘리트 집단이 500년 동안 자신들의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내혼(endogamy)으로 소위 ‘백인’을 유지하려는 노력 때문이었다. 이들은 단지 피부색만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혈연관계의 통제 및 유지를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권력 또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순수 혈통’을 보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독립 이후 순혈주의에 기반을 둔 유전학적 ‘인종’ 개념이 필요했을까? 식민지 시대의 인종, 종족에 대한 관념은 근대국가 성립 시기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Smith 1990). 왜냐하면 독립 이후의 인종 개념은 ‘또 다른 유럽’이 되고픈 라틴아메리카 엘리트의 열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de la Cadena (2001)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의 근대화 과정은 ‘진보’에 대한 새로운 신념과 위계적인 구질서가 결합되는 과정이며, Smith(1990)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근대성의 확립에 있어서 인종적인 타자를 근대적인 것의 반대편에 놓아야 근대 국가의 시민형을 안전하게 창출할 수 있었으므로, 이 인종적인 타자는 바로 ‘순수한’ 백인 혈통과 그렇지 않은 혈통으로 나눔으로서 가능했던 것이다.

III. 마야와 라디노 간의 분리와 혼합

현재 과테말라 사회구조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라디노(ladino)’와 ‘마야(Maya) 원주민’ 간의 관계를 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과테말라의 인구는 크게 라디노와 마야 원주민으로 나뉜다. 과테말라의 인구 센서스에서 인구 집단을 가려내는 방식은 ‘문화’이다(Nelson 1998). 가령, 라디노인가, 인디언인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언어 및 전통의 상 등의 문화적 특질을 주시한다. 과테말라의 마야원주민들은 과테말라 인구 천만 중 반 이상을 차지하며 대략 22개의 상이한 마야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스페인어가 공식언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마야 언어는 마야 원주민들의 토속 종교 및 전통 의상과 더불어 마야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적 특질로서 주로 서부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마야공동체들 중심으로 보존되고 있다.

반면, ‘라디노’는 과테말라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여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흔히 ‘메스티조’(mestizo)⁷⁾라고 일컬어지는 종족집단이다. 과테말라에서 메스티조 대신 사용하는 용어인 ‘라디노’라는 종족 정체성의 발명은 과테말라 동화정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라디노라는 용어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바로 “문화적으로 동화된 인디언”(Grandin 2000, 84)이기 때문이다. 즉, 마야 원주민 중 특히 국가의 동화정책에 순응하는 이들이 라디노라 여겨졌으며, 흔히 마야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이들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라디노는 결국 ‘인디언(혹은 원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되므로 인디언이 없이는 정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즉, ‘메스티조’가 생물학적 ‘혼혈’임을 인정하는 종족적 규정이라면 ‘라디노’는 아이러니하게도 ‘인디언의 피가 섞여 있음을 부정하는’ 가운데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유전학적이든, 문화적이든 ‘혼혈’만으로 정의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맑시스트들을 중심으로 고전적인 인종 개념 보다는 ‘계급’으로 마야 원주민들과 라디노 간의 구분을 소멸시키려는 세력들도 있었다. 이러한 ‘분리’와 ‘혼합’이 공존하는 20세기 중반이후의 이데올로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1. 몽고 반점(Mongolian spot)으로 인디언을 가려내기 : 생물학적 인종 개념과 순혈주의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테말라에서 라디노(ladino)는 여타 라틴아메

7) 볼리비아 같은 곳에서는 ‘촨로’(cholo)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라디노, 메스티조, 촨로 등은 모두 인종적, 문화적 ‘혼합’(mestizaje)의 과정을 겪은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장기간의 식민지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특유한 집단명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와 같은 곳에서는 ‘mestizaje’라는 용어를 적절히 번역할 용어를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보통 ‘혼혈’과 같은 생물학적인 섞임만을 가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순수 혈통’의 단일민족임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단일 민족 국가 성립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와 비교해 볼 때 굳이 혈통을 따져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리카에서 ‘메스티조’로 흔히 불리는 ‘혼혈’의 의미로서 지칭되는 종족집단이다. 특히 스페인어 사용 등 ‘인디언이 아닌’ 문화적 특질들로 라디노와 마야 원주민을 가름하는 문화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적 담론 속에서 라디노들은 흔히 ‘마야 원주민의 생김새’ 등을 따지면서 생물학적인 인종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근대 국가 성립 이후 라디노들은 점차 인디언들과 자신의 구별을 위해 문화 보다는 생물학적 인종 개념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생물학적 인종 개념은 자신과 타자를 구별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여전히 존재한다. 연구자가 현지 조사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자신과 마야 원주민들을 철저히 구별시키려는 라디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령, ‘인디언의 얼굴’이라든지, ‘피부 색깔’, 그리고 심지어 ‘몽고 반점’과 같은 형질적 특질(phenotypes)들을 들면서 이것이 마야 원주민들을 생물학적인 인종으로서 정의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자가 만났던 한 라디노는 농담조로 “만약 누가 인디오인지 알고 싶다면 치마를 들쳐 보라. 그러면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을 것이다. 우리 라디노들은 그런 게 없다”⁸⁾면서 형질적 특질로 마야 원주민과 라디노 간의 구분이 명확하게 성립됨을 믿고 있었다. 즉, 원래 ‘문화적으로 동화된 인디언’이었던 라디노들이 생물학적인 변이로서의 ‘인종’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생물학적 인종 개념은 더 나아가 특정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한 개인을 평가하는데 적용되기도 한다.⁹⁾ 더 나아가 생물학적 인종 개념에 의하면 인종적 특질이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 인구 집단에 대대로 전달되는 속성이다.

그렇다면 유전학적 인종 개념의 도달점은 어디인가? 바로 ‘순혈주

-
- 8) 필자는 실제로 라디노들에게 몽고반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사실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몽고반점이 있다거나 없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인종” 개념에 대한 인류학적 도전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인디언이 몽고반점이 있다는 것으로 인디언을 라디노로 부터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담론일 뿐이며 이러한 담론이 생물학적인 인종 개념을 재생산한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할 뿐이다.
- 9) 필자의 다른 글(최진숙 2005)에서 과테말라의 라디노들이 마야원주민과 자신을 철저히 구분 짓기 위한 방식으로서 “인종화”(racialization) 과정을 설명하였다.

의'이다. 좀 더 단순화하자면, 인디언 피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백인 피를 섞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몸은 '피'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이것은 그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그런데 '피'로서 재현된 인간의 정체성은 마치 붉은 색과 파란 색이 혼합되어 보라색이 되는 듯이 기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붉은 색 혹은 파란 색 중 어느 것에 더 근접한 색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순혈주의의 흥미로운 점이다.¹⁰⁾ 더 나아가, 우생학적 인종 개념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여타 라틴아메리카에서 백인의 피가 섞이면 섞일수록 피를 '개선한다'라는 관념이 존재하고 있다. 백인의 피를 섞음으로써 낮은 위치의 혈통을 개선하고 상승시킨다는 위계적인 사고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백(인)화'(blanqueamiento) (Casas Arzú 1998)라 불리는 신화이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한 몇몇 라디노들의 담론에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한 라디나(ladina) 여인은 자신의 딸의 피부색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더 하얀 색이었고, 머리색도 금발에 가까웠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머리 색깔은 갈색이 되었고, 피부는 약간 갈색이 도는 하얀색이 되었다. 그녀는 과테말라 동부 지역 출신인데, 그곳은 전통적으로 대규모 커피 농장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지역에는 독일 등에서 이주한 백인들이 많았다. 그 라디나 여인은 자신의 조상이 독일인과 섞였기 때문에 자녀들의 피부색이 다른 라디노들에 비해서 피부색이 다소 "열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¹¹⁾

10) 그런데 이러한 '혼합된 결과는 마치 계량 가능한 듯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계량화된 순혈주의는 미국에서도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적용된 바 있다(Strong and Van Winkle 1996). '순수인디언'을 가려내기 위한 방편으로 인디언의 피가 섞인 정도, 즉 몇 세대를 거쳤는가에 따라 50%, 25%, 16% 등으로 계량화시킨 것이다. Strong and Van Winkle은 '부분적으로' 인디언인 사람들이 과연 '부분적으로만' 차별을 받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계량화된 순혈주의의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계량화는 인간의 정체성을 '물화'(reification)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외모만으로 상대방의 인종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생각, 과학의 이름을 빌어 정립해놓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 이러한 과테말라 백인 엘리트의 순혈주의에 입각한 인종의 정치학에 대하여 벨슨

그런데 라디노들은 단순히 백인과 섞였다는 것에서만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니다. 흥미롭게도 다음의 인용에서는 단순히 '백인'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보다는 독일과 같은 다른 유럽인의 피가 섞여야 더 우월하다는 생각까지 드러난다. 까사우스 아르수가 인터뷰했던 한 라디나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독일인과 인디언이 섞이는 게 더 순수하고 더 건강하다. 스페인 인종은 워낙 순수하지 않고 섞여 있기 때문에 스페인 피와 섞인 인디언들은 게으르고 비뚤어진 성격을 가졌다”(Casaus Arzu 1998, 220).

이는 과테말라인들이 가지는 유럽에 대한 상상이다. 유럽 중, 특히 북유럽이 스페인에 비해 우월하다는 상상이자, 유전에 의해 사람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20세기에 와서도 근대적 인종 개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혈통 중심의 유전학적 인종 개념은 이제 라디노들이 마야원주민과 자신을 철저히 구별 짓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음이 보인다.

III.2. 인종의 소멸, 그리고 계급의 등장

: 맑시즘과 ‘혼혈’(mestizaje) 신화

한편, 라디노들 중 진보적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마야원주민들이 생물학적 인종이 아닌 농민 계급으로 보이게 된 계기가 바로 1945-1955, 소위 ‘10년간의 봄’이라 불리는 혁명 정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좌파 정권에게는 마야원주민을 지칭하기 위해 ‘인종’이란 범주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여타 라틴아메리카 예서와 달리 과테말라에서는 근대 국가 성립 시기에 ‘혼혈주의’가 도입되지 않았다.¹²⁾ 그런데 근

(Nelson)은 여성의 성(sexuality)을 통제하는 반면, 백인 남성이 인디언 여성에게 백인의 피가 섞인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인 양 생각하는 성차별적이며 인종차별적인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Nelson 1998).

12) 과테말라에서 인종의 정치학은 멕시코와 유사하게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형성된 국민주의(nationalism)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과테말라의 경우 멕시코와는 달리 ‘혼혈’담론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는, 즉, 문화적으로 변용된 인종 개

대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이 과테말라에서는 조금 뒤늦게, 그것도 사회주의적 국가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에게 마야원주민들은 ‘원주민’이라기보다는 단지 ‘농민 계급’으로 비추어졌을 뿐이었고, 이러한 사상에 의하면 마야원주민들은 라디노와 별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10년간의 봄은 끝났으나 반정부 좌파 게릴라의 투쟁은 지속되었고, 이들의 사상 또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게릴라와 정부 간의 전쟁은 이후 1996년 유엔의 중개로 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 까지 지속되며, 특히 1980년대에는 군부 정권의 국가 폭력, 그리고 이에 맞서는 게릴라 연합군 간의 투쟁으로 극도에 치달는다. 게릴라 연합군은 또한 URNG(Unidad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 과테말라 민족혁명 연합)¹³⁾와 같은 중심을 가지게 된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농민’의 카테고리에 속해있었고, 농민 조직을 중심으로 이러한 혁명적 운동이 전개되었다¹⁴⁾. 과테말라의 경우, 농민 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이 서부 산간 지역의 마야 원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원주민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했다. 그러나 이들은 URNG 상부조직의 권위주의, 비효율성, 인종주의로 인하여 게릴라 운동의 한계를 경험하였다(Hale 2006). 특히 게릴라 조직 내의 ‘계급환원주의’에서 마야 원주민 엘리트들은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이들은 마야인들만의 언어, 종교, 공동체주의 등의 특수한 문화를 무시한 채, 혁명의 단일한 이상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이다. Hale은 과테말라 등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개된 혁명적 사회운동은 ‘근대성’으로 향한 사회주

넘(김윤경 2006 참조)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멕시코에서는 독립 및 멕시코 혁명을 통하여 메스티조가 주도하는 국민 국가가 설립되었지만, 과테말라에서는 라디노가 주도 세력이 아니었고, 1944-1954년의 소위 ‘10년간의 봄’이라는 좌파 정권을 제외하고는 사회 구조를 뒤집어엎는 변혁을 겪는 과정이 없었다. 결국 라디노는 순전히 백인 엘리트가 만들어 놓은 인종의 위계질서 내에서 마야 원주민 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만족할 따름이었다.

13) URNG는 1982년에 기존의 좌익 게릴라 조직들을 합쳐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1996년에 유엔의 중재 하에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을 때 게릴라 조직 및 원주민의 이익을 대표하였으며 1998년에 공식 정당으로 설립되었다.

14) 리고베르타 멘추의 증언록(1993)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CUC(Comité de Unidad Campesina: 농민연합위원회)의 조직원들 중 다수가 서부 산간지역의 마야원주민들이었다.

의적 열망의 반영이라 규정짓는다(Hale 2006).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문제는 부차적이라 취급했으며 오히려 군부 독재와 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당시 대중운동의 핵심 이슈였던 것이다.

현재 과테말라에서 1980년대 대중운동에 참여했었던 좌파 지식인들은 흔히 마야원주민들의 ‘마야 정체성’(Mayaness)의 부르짖음을 신자유주의 정권이 열어둔 정치적 공간 속에서 단일한 공동체를 상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가령, Morales 1998). 이들은 특히 500년에 걸친 ‘혼혈’(mestizaje) 과정에서 순수한 마야인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물음을 던진다. Morales(1998)는 mestizaje 담론이야말로 실제로 ‘반인종주의’(anti-racist)적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마야인과 라디노 간의 차이란 순전히 문화적 차이일 뿐이며, 유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봤던 라디노들의 ‘생물학적 인종’의 적용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담론이다. 즉, 라디노들 중 좌파 지식인들은 마야와 라디노 간의 구분은 종족적(ethnic)이지, 인종적인(racial) 것이 아니며, 인간에게 빈곤과 차별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타고난 후진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Nelson 1998). 가령, 만약 마야원주민 여성이 전통 의상만 입지 않는다면 단순히 ‘라디나’(ladina)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종적인 구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 차이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가령 Warren 1998). 이와 같이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범마야운동이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IV. ‘인종’에서 ‘종족’으로: 범마야운동과 국가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앞서 언급했듯이 게릴라 전쟁은 1996년 유엔의 중재 하에 정부와 게릴라군 간의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서 끝이 났다. 장기 내전은 무려 25만명이 학살되는 대량 종족학살(ethnocide)을 결과하였다. 그 중 특

히 1982년 리오스 몬트(Rios Mont)의 명령 하에 실시된 ‘초토화’(Scorched earth) 작전에 의하여 서북쪽에 위치한 몇몇 마야 공동체들이 모두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주로 과테말라 동부에 거주하는 라디노들에 의해서 결성된 게릴라들이 서부 산간지역으로 이동하여 투쟁을 지속하면서, 이 내전은 군부 독재 정권과 서부 산간지역의 마야 원주민 공동체 간의 싸움으로 변모하였다. 내전 동안 마야원주민들은 게릴라 조직으로부터는 ‘농민’의 이름을, 그리고 정부로부터는 ‘빨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이러한 계급으로서의 마야 원주민은 19세기의 계급으로서의 원주민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인종으로서 규정되어야만 대규모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저임금의 노동자로 규정될 수 있었던 반면, 이 시기에는 농민이라는 이름으로 혁명적 사상을 재현하는 계급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1996년 정부와 게릴라군 간의 평화협정은 내전의 종식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크게 볼 때 마야 원주민들에게 상호 얽힌 두 가지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첫째, 예전에 비하여 개선된 민주주의적 정치적 환경으로 인하여 원주민들의 정치적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해빙기에 원주민들이 정당을 통한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되었다. 정치적 참여는 분명 교통의 발달 및 정보 습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오지의 원주민이 점차 도시로 나오게 된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과테말라의 마야원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전 당시, 그리고 평화 협정 당시에도 마야 원주민들은 정치적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주도적인 정치적 조직인 URNG는 빈곤층 농민 및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라디노들이 대부분이었고, 국가는 마야 원주민들을 단지 ‘공산주의에서 구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즉, 마야 원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이익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1998

년에 공식적인 정당으로 변모한 URNG는 마야원주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이는 단지 정치적 대표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만이 아니라 ‘마야인’으로서 참여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다. 과테말라에서 대표성을 지니지 못해왔던 원주민들의 이해를 대표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정당에 참여하여 소위 ‘주류’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마야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정치적 참여의 증가는 평화협정 이후 본격화된 범마야운동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1996년 평화 협정의 중심적 내용은 마야원주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 보장이었지만, 마야인들에게 이 평화 협정은 단순히 첫 발에 지나지 않았다. 그 협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선 마야인들의 목소리를 조직화해야 했고, 이 조직화가 바로 ‘범마야운동’(Pan-Maya movement)이라 불리는 문화 운동 혹은 민족 재생 운동이다. 이 운동의 목적은 다문화, 다언어 민족으로 구성된 마야인들을 ‘하나의 마야로 집결시키는 것이다.

현재 마야원주민 운동은 크게 (1) 마야 고유 언어의 보존 및 유용, (2) 이중 언어 및 기초 교육의 광범화, (3) 마야 전통의 재발견 및 유포, (4) 마야원주민들의 정치적 참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Fischer and Brown 1996). 물론 토지, 자원 등 경제적 문제들이 부차적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Coiji Cuxil 1996), 아직까지는 직접적 요구로까지 나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과테말라의 원주민 운동은 소위 “무정치적인”(apolitical) 정치 운동이라는 모순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이는 지난 36년간의 내전 기간 동안 마야 원주민들이 냉전 담론 속에서 경험했던 “인종 말살”적인 폭압을 피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 보기도 한다(Warren 1998; Fischer and Brown 1996).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야 종교, 언어, 사상의 권리를 알리고 쟁취하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하여 마야 순수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재생산해내고 오히려 그러한 운동이 마야 인디언의 문화를 지속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이 새로운 문화 운동, 그리고 열린 정치적 공간에서 마야원주민의 정체성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Fischer and Brown 1996). 물론 기존의 인종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야 정체성이 단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마야 원주민들은 이러한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라디노들의 ‘섞인 문화’와 자신들의 ‘순수한’ 문화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좌파 라디노의 ‘혼혈주의’적 사상은 범마야운동가들의 ‘다문화주의’의 이름으로 비판되기 시작하였다. 니카라구아 등 여타 중미와 달리 특히 과테말라에서는 좌파의 ‘혼혈주의’에 입각한 사회운동이 지속된다거나 정권을 바꾸는 등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Hale은 이를 과테말라에 이미 ‘혼혈주의’의 역사적 뿌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본다(Hale 2006).

그렇다면 이러한 마야 정체성의 고유함과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은 무엇인가?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마야 정체성이 내전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과테말라 사회에서 새롭게 정의된 것인가? Grandin(2000)은 범마야운동의 태동의 원인을 단순히 과테말라의 장기 내전으로 인하여 국민 통합이 실패했다는 것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19세기 근대 국가 형성 시기 마야 엘리트들이 커피 자본주의 성립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마야 엘리트들이 국가로부터 마야 원주민 공동체 내의 전통적 권위를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원주민 공유지를 커피 자본가에게 파는 식으로 커피 자본주의의 이해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마야원주민들은 꼬리오요와 라디노가 상상했던 국가, ‘동화’와 ‘진보’를 통한 근대성의 획득과는 전혀 반대되는 국가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마야 엘리트들은 오히려 마야 원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현재 범마야운동의 맹아였던 것이다.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인종적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마야원주민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는 계속된다는 사상이야말로 범마야운동의 핵심적 이데올로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범마야운동가들은 현재 이러한 문화적 차이의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문화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현재 마야 출신 지식인들 중 신문 칼럼이나 출판물 통하여 대중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도 국민국가를 외치고 있다 (Handy 2000 참조). 그러나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 마야 종족을 단일한 국민으로 보는 가운데, 기존의 근대적인 단일민족을 상정한 국민주의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라디노야말로 과테말라를 대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족으로 간주한다. 가령 Demetrio Cojti Cuxil이라는 마야 지식인이자 마야운동가는 라디노들이 유럽을 흉내 내고, 마야원주민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창출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Cojti Cuxil 1996; 1997). 그는 더 나아가 “우리는 모두 과테말라인인데, 왜 굳이 마야인임을 주장하려 하느냐”는 라디노들의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답한다. “어차피 마야와 라디노가 사회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좌파 라디노들의 의견은 인종을 없앴으로써 인종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일견과 유사하며, Cojti Cuxil의 의견은 마야와 라디노 간의 구별은 인종적 구별이며, 이러한 차이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현재 생물학적 인종 개념은 마야운동가 측이나 과테말라 국가의 담론 체계 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회적 구분이라는 측면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원주민을 인종도 계급도 아닌 문화적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테말라 국가도 마야원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일단 원주민 언어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중 언어 교육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국가 정책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상태이다. 과테말라 국가는 19세기 독립 후에 유럽식 발전 모델을 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구 근대와 마찬가지로 국민국가의 완성과 근대적 자본주의의 정착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목표는 내전 및 인종 차별의 문제 때문에 끝없이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지향점과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마야 원주민 운동은 과연 과테말라의 다문화주의가 과거의 근대 국민주의를 대체

하는 새로운 국가이데올로기에 불과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근대 엘리트들이 상상했던 근대 국가와는 전혀 다른, 대안적 세계를 상상하는 것인가 등의 중요한 물음을 던져준다.

V. 결론

요컨대, 본고에서 필자는 과테말라의 역사적 상황과 권력 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인종’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고, 재적용되며, 그리고 회석되는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수한 인종 개념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역사적 특수성이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인종’ 개념이 권력 관계와 역사적 구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과테말라 근대 국가 성립 시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인종’의 의미, 그리고 ‘인종’이었던 마야원주민이 ‘계급’ 및 문화적 정체성인 ‘종족’으로 재탄생하게 된 역사적 계기 및 국가 이데올로기의 변화 등을 고찰하였다. 과테말라에서는 각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마야원주민에게 적용된 ‘인종’의 의미가 변화하여 왔다. 특히 19세기 당시 태동, 적용되었던 ‘인종’이라는 개념이 공식 국가 이데올로기로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나 대중담론에서는 근대국가 성립 당시 등장하였던 ‘인종’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본고의 의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인종’ 개념이 시대가 변하면서 어떠한 식으로 변화, 재규정되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인종이란 단순히 이데올로기라는 주장을 넘어서서 이데올로기의 작용 과정의 역사적 구체성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라틴아메리카 사례들을 수집, 비교함으로써 인종의 정치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notion of 'race' in Guatemala.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iscuss how the notion of race in Guatemala has been shaped in specific sociohistorical conditions since the post-colonial period until now. In the 19th century, the nation-state began to be built, accompanied by a new ideology of 'the national development,' which in general excluded the Maya from the benefits of economic development, but assigned the biological category of 'race' to the Maya. Racist attitudes have continued forming the dominant ideology of the oligarchy and ladino intellectuals elaborate and transmit a coherent and homogeneous form of ideology that includes their vision of indigenous people. During the popular movements period in Guatemala, the main ideology of the leftist guerrillas was based on class struggles which sought the unification of Indian peasants and ladino workers. The discourse of 'race' that has been useful to discriminate against Mayan Indians has recently been challenged by Mayan cultural activists' efforts to redefine Mayan Indians as a unified ethnicity. Mayan cultural activists are seeking self-determination, forging a homogenous identity or solidarity as a tool of resisting the dominant. The current movement reflects a change of understanding of identity not just from class-centered as in the guerrilla movement, but also from community-bound ethnicity to the level of 'Pan-Mayan' identity. In conclusion, the notion of 'race' that was associated with the identity of the Maya in Guatemala has been invented, redefined, and transformed in specific historical conditions. This study will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the notion of 'race' in Latin America as an ideology and as a social reality.

Key Words: Guatemala, Race, Racism, historicity, Maya, Ladino/ 과테말라, 인종, 인종주의, 역사성, 마야, 라디노

논문투고일자: 2007. 07. 15

심사완료일자: 2007. 08. 04

게재확정일자: 2007. 08. 15

참고문헌

- 김세건(2003), 「메스티소와 원주민 사이에서: 멕시코 국민주의와 원주민 종족성」, 한국문화인류학, Vol. 36, No. 2, pp. 3-36.
- 김윤경(2006), 「“혁명적” 인디헤니스모(Indigenismo “Revolucionario”)의 이념적 성격: 마누엘 가미오(Manuel Gamio)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9, No. 3, pp. 159-194.
- 리고베르타 멘추 구술, 엘리자베스 부르코이 정리(1993), 『리고베르타 멘추』, 윤연모 옮김, 장백.
- 주종택(2005), 「멕시코의 원주민 정책과 종족성: 메스티소와 원주민의 관계」,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8, No. 4, pp. 237-270.
- 최진숙(2005), 「인종화와 종족화 사이의 이중구속: 과테말라 마야 인디언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 비교문화연구, Vol. 11, No. 2, pp. 143-172.
- Adams, Richard N.(1991), “Strategies of Ethnic Survival in Central America,” in Greg Urban and Joel Sherzer(eds.), *Nation-state and Indians in Latin America*, Austin: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pp. 181-206.
- Burns, E Bradford (1980) *The Poverty of Progres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saús Arzú, Marta Elena(1998), *La Metamorfosis del Racismo en Guatemala*, Guatemala: Cholsamaj.
- Cojtí Cuxil, Demetrio(1996), “The Politics of Maya Revindication,” in Edward F. Fisher & Richard M. Brown(eds.), *Maya Cultural Activism*, Austin: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pp. 19-50.
- _____, (1997) *Ri Maya' Moloj pa Iximulew, El Movimiento Maya en Guatemala*, Guatemala: Cholsamaj.
- de la Cadena, Marisol(2001), “Ambiguity and Contradiction in the Analysis of Race and the State,” *Journal of Latin American Anthropology*, Vol. 6, No. 2, pp. 252-266.

- di Leonardo, Michaela(2004), "Human Diversity," Presented at *Race and Human Variation: Setting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and Education*,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 Fischer, Edward and M. Brown(1996), *Maya Cultural Activism*, Austin: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 Fischer, Edward F.(2001), *Cultural Logics and Global Economies: Maya Identity in Thought and Practi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Grandin, Greg(2000), *The Blood of Guatemala: A History of Race and Na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Hale, Charles R.(1997), "Cultural Politics of Identity in Latin America,"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6, pp. 567-590.
- _____(2006), "Neoliberal Multiculturalism: The Remaking of Cultural Rights and Racial Dominance in Central America," *Political and Legal Anthropology Review*, Vol. 28, No. 1, pp. 10-28.
- Handy, Jim(2000) "Democratizing What?: Some Reflections on Nation, State, Ethnicity, Modernity, Community and Democracy in Guatemala," Paper Presented at *Threats to Democracy Conferenc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B.C., Nov. 3-4, 2000.
- Harrison, Faye(1995), "The Persistent Power of "Race" in the Cultural and Political Economy of Racis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4, pp. 47-74.
- Helmberger, Janet(2006), "Language and Ethnicity: Multiple Literacies in Context, Language Education in Guatemala," *Bilingual Research Journal*, Vol. 30, No. 1, pp. 65-86.
- Little-Siebold, Todd (2001), "'Where Have All the Spaniards Gone' Independent Identities: Ethnicities, Class and the Emergent National State," *The Journal of Latin American Anthropology*, Vol. 6, No. 2, pp. 106-133.
- Lovell, W. George(1988), "Surviving Conquest: The Maya of Guatemala

- in Historical Perspective,”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23, No. 2, pp. 25-57.
- Martínez Peláez, Severo(1971), *La Pátria del Criollo: Ensayo de Interpretación de la Realidad Colonial Guatemalteca*, Mexico: Ediciones en Marcha.
- McCreery, David(1986), “An Odious Feudalism: *Mandamiento* Labor and Commercial Agriculture in Guatemala, 1858-1920,”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3, No. 1, pp. 99-117.
- Morales, Mario Roberto(1998), *The Articulation of Differences: The Literary and Political Discourses of the Interethnic Debate in Guatemal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Nelson, Diane(1998), “Perpetual Creation and Decomposition: Bodies, Gender, and Desire in The Assumptions Of A Guatemalan Discourse of Mestizaje,” *Journal of Latin American Anthropology*, Vol. 4, No. 1, pp. 74-111.
- _____(1999), *A Finger in the Wound: Body Politics in Quincentennial Guatemal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medley, Audrey(2007), *Race in North America: Origin and Evolution of a Worldview*, Third Edit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 Smith, Carol(1990), “Origins of the national question in Guatemala: A Hypothesis,” in C. Smith(ed.), *Guatemalan Indians and the Stat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p. 72-95.
- Strong, Pauline T. and B. Van Winkle(1996), ““Indian Blood”: Reflections on the Reckoning and Refiguring of Native North American Identity,” *Cultural Anthropology*, Vol. 11, No. 4, pp. 547-576.
- Warren, Kay(1998), *Indigenous Movements and Their Critics: Pan-Maya Activism in Guatemal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odward, Ralph Lee(1987), *Central America: A Nation Divid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